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29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2. 26.(금) 14:00~19:59
- 장 소 : 화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회의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술가의 집에는 신임 7기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6개의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그리고 지난 위촉식 간담회 자리에서 문체부 장관님과 약속한 정책워크숍 준비에 관한 논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위원 모두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원이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9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지난 2월 22일 위촉되어 오신 장인주, 정정숙, 정종열 등 3인의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예술가의 집에서 OT를 마치고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임기 3년의 위원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인주 위원님부터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기 무용 분야의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된 장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비전, 취지 등을 파악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은 우선 회의를 통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예, 안녕하세요, 정정숙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예술위원회의 사업들 그리고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위원 : 안녕하세요, 음악분야의 위원 정종열입니다. 오늘 오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세 분의 위원님께 22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

은 위원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95차 전차(前次)회의에는 4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계획(안)은 유보되었고 나머지 3건은 원안의 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6차 서면회의에서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 결이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기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6개의 의결사항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지원심의 결정과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해당 안건은 문학지원부 정대훈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860호 2021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진행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전 공지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2021년 1월과 2월에 1차와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시와 소설 등 문학 장르의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포상금으로 수여됩니다. 이것은 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모두 80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자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건수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125건입니다. 그중에 선정 목표는 80건입니다. 이것은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매우 낮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내역을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시,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평론·희곡 등 각각 분야별 신청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표에 나와 있듯이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심의는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100%로 보고 심의를 하고요. 2차 심의는 문학적 수준을 포함하고 작가의 역량과 집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여한 심의위원이 1차 31명, 2차 16명으로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그 47명의 성비, 지역비, 연령비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에는 심의위원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1차 심의에서는 선정 목표의 약 2배수에 해당하는 166건을 선정했고 2차 심의에서는 최종 80건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결과발표인데 1차 지원심의 결과 발표는 이미 했지만 2차 심의는 3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과 회피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의 때 결격이 43건입니다. 그런데 많아 보이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은 추후에 원하시면 결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시조가 24건, 소설 21건 등으로 해서 총 80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장르가 30% 이상을 초과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장르 간 안배를 했고요. 동점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발간 계약서 첨부 여부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있는지, 그리고 직전연도 미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예비 30명 정도, 그러니까 37% 가까이 되는 예비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도 그랬지만 통상 서울문화재단에 유사한 규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문화재단이지만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시기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신청하고 아르코창작기금에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나중에 선정되었을 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 선정을 넉넉하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선정대상자의 연령별, 지역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많은데요. 1차 심사와 2차 심사 결과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요. 최종 선정내역은 3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 심의 총평은 5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지원부장님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사전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태림 위원의 사전 의견으로는 청년지원율과 관련한 것과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태림 위원님 지금 제가 요약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태림 위원 : 예,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 비율이 30%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진을 40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정률을 20대, 30대, 40대로 나눠서 봤을 때 실제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학지원부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안은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쪽에서 심의위원 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수를 고려해서 앞으로 20대, 30대 풀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3월 전체회의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서에는 쓰지를 못했는데 지원총괄부 쪽에 얘기를 하는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심의 위원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심의위원 풀 안에서도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대응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지원총괄부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리고 박경주 위원께서는 아동·청소년문학을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쪽으로 옮겨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사전 질의가 있었으니까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태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는, 최종 지원 대상자 중에 세부 연령별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지만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선정자가 2명입니다. 2.5%에 해당됩니다. 30대 선정자가 8명으로 1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대 선정자가 18명으로 22.5%에 해당됩니다. 50대 선정자는 36명으로 45%입니다. 즉, 50대 선정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 선정자가 15명으로 18.5%입니다. 그리고 70대는 1명으로 1.25%입니다. 지금 이것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두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의 연령별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중에 20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30대가 1차, 2차 각각 2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대는 1차에 10명, 2차에 3명입니다. 50대는 1차에 14명이고 2차에 9명입니다. 60대는 1차에 5명이고 2차에 7명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제도나 심의위원 구성 등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논의 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발간지원사업이라 이 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분류하여 다른 특성의 사업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많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발간지원사업의 성격으로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청소년 분야가 있고요. 아마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사업에 아동·청소년 사업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신 사전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는데요. 지금처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백 위원 : 다른 위원님들과도 공유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문학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현장의 작가들에게 발간지원사업은 상당한 관심,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작가들에게 관심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거의 변함없이 동결 수준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결과를 봐도 응모에 비해서 선정된 비율을 보면 100명 중에서 7명밖에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93명의 불만과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현장 문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발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기공모 외에 특별 공모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듣고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125건이 신청해서 80건을 지원해 주면 지원 선정률이 7.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해지는데 기초예술을 진흥한다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대안이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경영전략본부나 기획조정부 쪽에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장르 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서서 마이크로 지원율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저희가 넘어서자는 얘기가 간간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부서 쪽의 공식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문학뿐만 아니라 창작 쪽 분야의 예산이 향유 쪽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에서도 우선적으로 창작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의견을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문화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중심의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공연 외에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예산 쪽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이 조금 보태주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선정률이 7%로 아주 적은 비율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할 때마다 지원신청건수의 증가만을 가지고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사업혁신 TF에서 문학 분야를 논의하면서 2022년 5월까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성과를 부각해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작년도 추경 편성을 할 때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기존 사업들의 증액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청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 추경을 대비한 사업을 발굴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그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올해는 반드시 문학 분야의 긴급한 예산 확보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게 처음 나온 안건이 아니고요. 문학 분야의 선정률 자체가 계속 낮은 형편이라서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데 예산 당국을 넘어서기에는 이것만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문학 분야의 목소리가 사무처 외에도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 한, “많이 지원하는데 조금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이시백 위원님께서 문학단체나 이런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문화부나 기재부에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작업들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질문인데요. 다른 장르들과 비교해 볼 때 선정률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나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학은 다른 모든 장르에 비해서 가장 근본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분명히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타 장르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문학지원부장이 말씀해 주시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제가 알고 있기로 통상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약 30%를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독 개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르코창작기금 사업만 1,000명이 넘고요. 저희의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 6% 전후의 선정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지원부장님, 문학지원부의 올해 예산이 국비 비중을 제외하고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는 3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체육기금사업과 국고 일반회계 수탁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68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가 문학창작산실 창작기금, 문예지발간지원사업 등이 30억 규모라 비율 상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문학지원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98억 규모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예산 3,000억 중에서 창작지원 기금을 대략 800억 정도로 보았을 때, 그중 30억 정도 규모가 문학지원의 부분이고 거기에 국비 68억 정도가 보태져서 100억 정도의 회계를 유지한다는 보고입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문학을 진흥하는데 30억이라고 하면, 30억을 가지고 한 나라의 문학을 진흥할 수 있다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1차적 책임은 예술위원회에 있다고 하여도 결국 예산의 승인은 정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예술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방법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초예술 증진에 관한 예산은 많이 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학과 관련한 특별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열차' 등 급히 제안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이 요청한 범 문학단체의..... 이것은 위원장으로서도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양한 방식의 도움, 다양한 방식의 예산 요청 도움을 문학계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논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사무처를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문학 장르의 문제점들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여러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재부가 왜 이런 창작지원금에 대해

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설득의 노력이 필요한지도 추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한 문학단체의 공통된 입장 표명은 조만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작지원 사업을 이렇게 동결하다 보니까 다른 틈새의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지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사업 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지원사업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처럼 93명이 탈락하고 7명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좁은 틈새를 놓고 여러 가지의 불만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게 내 작품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정대훈 부장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심의위원 풀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풀 안에서 심의위원들을 위축하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봤을 때 매번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 전에 정 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공모 자체만으로 심의위원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축이나 전담심 의위원제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금 심의위원 풀을 조금 더 넓히고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비춰질 때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불필요한 의혹이나 우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림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관련해서 지원 선정 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과 예산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이 사업이 그렇기도 하지만 예술위원회의 전반적인 지원 사업들이, 그리고 운영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플러스하면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문체부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공감되지만 결국 기재부에서 막히고 있고요. 기재부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나마 신규 사업이라도 가지고 가야 해 줄까 말까 하니까 문학지원부도 신규 사업을 추경(안)에 넣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2021년도 예술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외협력 기구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었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문체부를 비롯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재부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재부가 무엇 때문에 안 준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기재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얘기도 레벨이 모두 다른 얘기입니다. 아르코 전체에서 창작예산 증액이라는 이슈가 있

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국가 전체 안에서 예술창작 예산에 대한 증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안에서 장르 지원 예산 배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학지원사업 안에서 사업 간 우선순위나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3개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3번은 아르코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시백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하면 문학 사업 안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장르 간 문제는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장르 간 파악된 예술가와 지원 액수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특정 장르가 지나치게 불균등하다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창작 예산은 사실 문체부나 기재부 등 국가 단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뭉뚱그려서 접근하지 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번과 3번은 아르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것은 “왜 증액이 되어야 하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장관과의 워크숍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국회 등에 가서 제출한다든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학계나 예술계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에 관심이 없다.”, “국가가 돈을 안 준다.” 이런 식의 논의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솔루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솔루션을 찾는 방법으로 준비해서 다시 안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원재 위원님이 정리한 것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전체 창작 예산 증액의 문제가 있고, 문학 안의 장르 간 불균형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내적인 일을 구분하여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대응하자는 정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것은 지원 사업이니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번호 제861호 2021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 올해 큰 틀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 사업은 40억 예산을 가지고 ‘아르

코 공공예술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신규로 추진되었습니다. 19건을 선정해서 27억의 예산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예술이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체부가 하고 있는 947억짜리 작년도 추경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고요. 관련해서 지난해 협력을 요청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문체부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올해 저희 쪽으로 이관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건축미술작품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작품들을 포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예술사업이 이런 기타 등등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문체부가 작년에 추진했던 947억 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저희 기금에서 2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 만족도조사 그리고 자료집 등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와서 총 448억 정도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녹여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이슈는 지금 국회에서도 지역에서 거뒀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의 편제도 예술창작이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사업의 편제 속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는 거칠게 로드맵을 만들어봤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이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체계화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식으로 잡아봤고요. 2023~2025년은 다양한 공공미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체부와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정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공공작품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제도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틀을 나름대로 도식화해 봤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짙은 사업으로 볼 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공공적인 이슈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조금 더 압축을 한다고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UN에서 제시한 지속발전 가능한 주제 17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2012~2015 그리고 길게는 1950년이나 1990년 등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를 다루어왔고 SDGs라는 목표는 1,00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160개의 정상과 193개의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내용이며 그 주제로 봤을 때 서로 간의 연계성을 아주 치밀하게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보편적인 이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도 지속가능목표를 만드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공공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며 홍보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지금 주제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올해는 인큐베이팅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자율형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업을 하기 전에 퍼블릭 샐릿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워크숍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나 연구 활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방식 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구조사 사업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자율형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공공예술사업의 핵심 이슈는 사후관리입니다. 1995년 건미법이 의무화되면서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이슈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크게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지역에서 거두어져서 저희에게 출연된다는 점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뒀지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거뒀진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는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최소 보장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최소한 30% 이상은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산은 작년 대비 5억이 줄은 35억이고요. 실제로 사업 운영비는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 저희 사업에 대한 관리 등이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름대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기후변화, 미디어아트 등 지정을 한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저희가 풀을 제시해서 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작년에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과정과 담론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작년에는 단년도가 많았다면 올해는 단년도를 넘어서 2개년 정도로 길게 계획을 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도 조금 더 열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최소 보장제 등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의결이 되면 3월에 공고를 하고 심의를 하는 방식이고 예산은 20페이지에 보듯이 안을 짜서 만들어봤습니다. 21페이지부터 4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31페이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사업들이 타 분야와 연계되는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예술을 통해서 확산하고 창의력과 예술성을 더 높여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안건번호 제861호 2021년 아르크 공공예술사업 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담당 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5개의 질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총액 947억의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후속조치인 전수조사 결과 보고집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2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고 예술위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업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시각예술본부장과 문체부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를 알려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작년에 타 단체에서 올해 예술위로 재이관이 되었는데 여기

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예술위와 문체부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관례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질의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적 공공예술 작품을 발굴해서 새로운 방향성이 이 사업 안에서 구현되었으면 한다는 질의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의 쓰임새를 넓게 넓히는, 그러니까 속칭 예술의 사회적 기능 확장과 관련되어서 가지게 된 우리 7기 위원회의 고유사업이니만큼 여기에 따른 원래의 사업의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겠다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사업 결과에 대한 공유회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해 제가 사전 질의 하나는 요약은 못해 드렸는데요, 추가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올해로 2년차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성과를 견인하고 공공예술사업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확장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의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 정상적인 절차들을 동원해서 이번에 의결하지 말고 1~2회 정도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3월 전체회의나 3월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절차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약한 4개의 사안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겠지만 의결 절차, 즉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2020년 성과를 잘 관리하고 2021년도 사업에 역동적인 전개를 위해서 2차례 정도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보완하고 충분히 사업내용에 반영하는 등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여 3월 전체회의나 서면회의로 추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떠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의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홍태림 위원께 이 사업의 제기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돈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보탬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공예술사업은 7기 위원회와 함께 시작된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차를 지나고 2년 차로 접어드는 시기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성적으로 다시 2년 차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내용이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원 공고가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저도 이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홍태림 위원님의 첫 번째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

년도 사업평가가 있고 올해 사업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의 특수성으로는 전년도 지원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예술 사업들은 대부분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까지 실행 작업을 저희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고 공고를 내면 내년도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요. 불가피하게 과정 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완해서 일단 의결절차는 들어가고 사업의 평가나 전년도 사업의 과정을 공유하는 작업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모두의 보고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40억 총액 중에서 27억이 현재 집행된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시각예술부장님이 보완을 해 주시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 중요성 그 다음에 예술계의 기대 등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처음 했으면 올해 평가를 받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오고 그것이 올해 반영되는 게 이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이 끝나고 하게 되면 하반기인데요. 그때는 너무 늦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홍태림 위원님의 지적도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올해 특이한 것은 기존 틀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 사업이 저희 쪽 예산을 써서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공미술, 공공예술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공예술 사업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고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시각예술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미뤄서 의결하게 되었을 때 이른바 사업의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몇 월에 이 사업의 공고가 나갔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입니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작년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정도에 나갔고요. 실제로 작년에 선정되었던 사업들 중에 단년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이 있는데요. 단년도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었고 6개 사업이 2개년 사업이었는데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보태자고 하면, 사실 올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많이 줘야 그 안에서 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접근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우선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억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말에 문체부에서 국회자료요청과 자문 회의 등을 통해서 보니까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후속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10억 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반영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 시점에서는 10억 원 중에 5억 원이라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반영이 되면 예술위원회에서 협력해서 2020년에 추진한 것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승인 과정에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문체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예술위에 이관하겠다는 예산이 4.6억 원인데요. 이 예산이 정부(안)에는 1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2차 연도 사업이 4억 정도가 되는데요. 7억 정도의 신규 사업 중에서 후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실에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모두 다 삭감했고요. 그래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2.5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사업 관련해서는 공공예술 관리형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 요청을 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프로젝트가 3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전수조사 그리고 참여 작가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효과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백서나 도록을 발간하도록 저희가 업무 매뉴얼에 명시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948억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4.6억 원에 대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사실 그 전에는 예술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하다가 예술위로 재 이관 검토를 문체부에서 요청했고요. 문체부에서는 2가지 이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미술작품기금을 예술위가 출연을 받고 있고 관련해서 공공예술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마을미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작가들이 공예디자인진흥원보다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 2020년에 저희가 공공예술 사업을 반영할 때 문체부에서도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 그것 한 가지와 “지역 지자체 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술 사업에서 재원을 고려하다보면 지역,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예술위가 같이 운영하다보면 이 부분을 강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분도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기는 한데요. 2.5억 부분 관련해서는 예술위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외부 주관기관한테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미술 프로젝트 4.6억 원은 그 예산 안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담당 부장으로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실 테지만 예술계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숙의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의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되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유를 하고 올해는 힘들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고요. 단, 지금 문체부가 하고 있는 마을미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는데요. 인건비는 없다고 들어서 약간 황당해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저희한테 줄 때는 저희 시각예술부가 몇 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하는데요.

사실 창작산실은 1명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 때는 국가가 사업을 위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홍태림 위원님과 저희와 문체부의 담당자가 한번 만나야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급하게 안건으로 올려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의결해 주시면 추후라도 문체부와 만나서 전체적인 방향. 게다가 그때 홍태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추경으로 했던 947억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체부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이번에 의결이 되면 그렇게 실무진과 함께 봐 주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았어요. 이윤희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성을 포함해서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불평등한 관계에 있거나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사업 관행들, 즉 정리를 하거나 바뀌어야 할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야 하거든요. 위원회에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사실 위계라고 저는 느끼지 못했구요. 왜냐하면 문체부의 담당자들도 어쨌든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세팅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큰 예산이 떨어졌고 이 사업 기간 자체도..... 이것도 역시 추경 사업이다 보니 작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서울시를 포함해서 세종시 등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떤 지자체는 공모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딱힌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예술위도 2020년도에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서도 문체부와 같이 노력을 해

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술계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태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관계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번 마을미술 프로젝트나 대규모로 추진했던 문화부 후속작업 관련한 일들을 위원회가 하면 좋겠다는 판단은 문화부가 일을 하면서 예술위라는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이 큰 것이었습니다. 예술위의 실행 역량을 믿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수반되는 조건을 문화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시기 등의 세부 조정은 이것이 의결되면 문화부와 미세 조정을 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속 가능성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미술계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947억이 넘어오면서 우려의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저는 그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 지금 넘어오는 공공미술 사업들이 다 문제성 사업들을 넘기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을미술사업은 대표적 문제성 사업이고 공공미술사업을 다 망쳐놓고, 문체부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마을미술로 전환시켰다가 폭발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보고 가져가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947억도 우려했던 그대로 하나도 수습이 안 되고 아무런 정책적 플랜이나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기는데 공공미술에 대한 정책적 이니셔티브나 인력 등의 설계가 없이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미술계나 아르코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이 돼야 전략적으로 승인을 하고 협의를 하자는 것에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이니셔티브를 갖자고 판단하시면 정책적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공고를 빨리 내보내 주고 공공미술에 대해서 어쨌거나 아르코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업이 사실 내용은 공공미술 관련된 것은 많이 얽혀 있는데 우리가 잘해 보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공공예술의 옷을 입으면서 SDG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SDG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울드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SDG 논의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기후협약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SDG를 걸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이나 미술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갑자기 예술위가 SDG를 지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 미션이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공공미술에 대해 아르코가 다시.....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던 것을 가져갔다 다시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문체부가 문화다양성 사업 등을 망친 방법들인데요. 앞으로 이게 반복되지 않게 공공미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왜 SDG냐?” 그러면 지금의 공고대로 나가면 공공미술사업과 SDG 사업

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저는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결을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거나 전략이 있으면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냥 좋게 문체부와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의견을 보완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조금 미묘한 지점이 있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공공미술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사업이 파행으로 갈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뉴딜사업이나 추경 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작년에 이 기획회의를 할 때 제가 생애 최초로 자원해서 자문 회의에 간 적이 있어요. 스스로 손을 들고 자문 회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된 추진 주체와 방식을 갖고 재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추진체계를 만드는냐에 따라서 미술계나 예술계나 문화적인 활성화 등을 재구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때는 사실 문화부 주도로 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위원회가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전수조사해서 평가지점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 등의 미비함은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라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그때 그때 다른 필요에 의해서 기획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연관관계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공예술 등의 사업 예산이 커진다고 할 때 위원회 내에서 추진체계나 논의 방향 등을 정비해서 사업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미술 기금 등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에 놓여 있고요. 저희도 초보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위원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게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진희 위원 : 위원장님, 저도 잠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이고 공공예술작품을 발굴해서 새로운 방향성이 이 사업 안에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결과의 우량함 등을 환류하기 위한 공유회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홍태림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앞서 위원님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느낌에는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SDG 국가 보고서를 쓸 때 문체부 관련한 사항들을 쓰기 위해서 갑자기 인식된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공공예술이라고 정의에 써 놓으셨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SDG 라는 것을 어색하게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예술을 올해 예술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의제적 주도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DG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면 좀 열어놓고 주제에 대한 포괄성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격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문건에서 지원자격 등의 부분이 공공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콜렉티브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가 활성화 되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자격 부분에서 개인이 배제되는 문제 등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회가 현재의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어려운 실무적 여건이라면 전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완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갖춘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라도 공공예술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심의 과정에서라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답변이 필요한데요.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여기에서 핵심은 주제라기보다, 주제는 작년도도 기후변화를 채택해 주셨고요. 올해도 저는 그것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제의 핵심은 인큐베이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SDG라는 말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용의 17건 주제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자율형으로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기후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예술계에 열어줘도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주제에 대한 얘기고요. 핵심은 인큐베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사업을 하는 방식은 자율형에서 하시되 이 사업은 그 전의 단계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점을 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이원재 위원 :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재단이나 기관이 참여하고 3곳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인큐베이팅을 하려면 리서치나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을 오히려 현장 예술가들 쪽을 열어줘야 인큐베이팅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국 3곳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단 중심이고요. 그 부분은 마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최대 3건입니다. 1건이 될 수도 있는

데요. 주관처 성격의, 그러니까 기후변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10개 정도의 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를 조직화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단체. 소위 말해서 주관처 성격을 가진 단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신청 자격 문제에 대해 답변이 덜 되었어요.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여기의 신청 자격은 인큐베이팅 부분만, 다른 사업들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열어놓았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단, 인큐베이팅 과정은 주관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을 연계시키고 조직화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것이어서 이것은 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이진희 위원 : 예, 일단 설명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인큐베이팅이 이렇게 구조화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일단 이것은 다른 고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술의 공공성이나 지속 가능한, 특히 지역단위 마을 사업의 결합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촘촘하게 짜여진 사업인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공예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명에 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공미술사업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열개로 보자면 이것이 공공미술사업이라고 아예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폭넓게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범주를 확장하거나 기회를 논의단계나 기획단계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문학이든 음악이든 지역단위 다른 장르의 예술현장의 작가들도 이 사업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게 지나치게 시각예술이나 미술이나 건축분야로 협소화 된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공미술사업으로 국한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현장에서 실태가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의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의 취지로 본다면 다른 장르의 예술분야도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큰 틀의 기획이나 논의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예술분야들이 함께 참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시작은 공공미술,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출연금입니다. 오늘도 문체부에서 매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 돈은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등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공공미술로만 국한되지 않고 미술장르가 타 장르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일각에서는 뉴장르 공공미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공공예술이라고 해서 영역을 넓혀 놓았다고 보고요.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은 모든 장르가 가능합니다. 단, 시각이 지금도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장르가 못 들어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시백 위원 :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900억의 긴급코로나 지원으로 투입된 공공예술의 지원방안도, 공공예술이 결국 공공미술 중심축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지역단위의 지자체들도 관행으로 삼아서 그런 쪽으로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소외되는 감이 있어서 기초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아르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우선 1차 도 사업이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평가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혁신 TF에서 논의가 되거나 시각예술 담당이신 홍태림 위원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홍태림 위원님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중간보고가 없이 결의안으로 올라와서 오늘 논의가 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홍태림 위원님이 제안하신 1차, 2차의 자문회의를 거치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과 우려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3월에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는 홍태림 위원의 문제 제기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을 포함하고 한 두 차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도 사업을 강화하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의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결은 진행을 하고 이것은 하면 됩니다. 다만, 사무처장이 아까 보고하여 우리가 안 것처럼 이 사업은 6월에 종료되고 제대로 절차를 그리려면 종료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환류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 논의의 숙의를 통해서 의결절차를 가자말자의 문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안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홍태림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진전을 시켰는데 지금 의결에 들어가고 나머지 자문회의 문제 등을 보완하는 형식은 어떻겠습니까?

홍태림 위원 : 조건부 의결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전차년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전담심의위원들이 저희 공공예술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경 미술사업과 관련해서 다니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술위의 공공예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이 완료된 팀에 한해서 참여팀이나 개인에게 자문이 구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과 보완 과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요약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홍태림 위원님도 그렇고 박경주 위원님도 그렇고 전문성의 바탕이 시각 쪽에 있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양질의 의견들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박경주 위원님께 여쭙보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보완되고 해결지점을 찾았으니까 홍태림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박경주 위원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결을 하되 “어떤 것을 반드시 진행하

라.”라는 형식으로 의결하면 어떨지를 박경주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요.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의견을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요. 오늘 의결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신 건 박경주 위원님과 홍태림 위원님이셨으니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늘 의결을 하되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혹은 2020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6월경에 올해의 성과를 갈무리 하고 2021년도 사업을 보다 보완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의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원재 위원 : 동의합니다.

정정숙 위원 : 홍태림 위원님과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건부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동의 하시죠?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고요. 그 수정안에는 그 2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2021년도 사업의 긍정적인 사업개선 등을 위해서 작년에 전담심의위원을 하셨던 분들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1~2차례 열어서 사업을 보장하도록 하고 2020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2020년도 사업의 성과를 환류할 수 있는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과를 환류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원재 위원 :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보완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공공미술 지원사업에 대한 아르코 자체의 계획수립이나 문체부 협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원재 위원 : 일단 오늘 확인된 것처럼 이 사업이 모두 다르게 조각처럼 들어와 있는 상황 이잖아요?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오늘 동의를 한 이유는 사무처나 사무처장님의 계획에 동의를 한 것인데요. 이것을 지렛대로 공공미술 현장도 그렇고 아르코도 그렇고 전환점으로 삼자는 제안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되려면 모두 다르게 문체부와 협의해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원사업 공모 자체와는 별개인 것 같지만 그것에 따라 문체부와 협의가 돼야 이후의 재원확보나 우리가 일하는 팀의 환경조성도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없이 그냥 이 사업 자체만 손을 보는 수준으로 되면 그냥 큰 짐을 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환류 안에 문체부와 각 사업주체 간에 협의조절 내용들을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2021년도 추경 사업에 미리 대응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한 것을 조건으로 달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을 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전원이 찬성의사를 표해주셔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안건번호 제 862호 2021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입니다. 별도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시공모사업을 의결하며 의결은 정시공모로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된 상태였고요. 홈페이지 등에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고 이번에는 일부 사업별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국제예술확산지원 같은 경우 일반 공모와 홍보키트지원 등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한다던지 해외레지던스나 지정형 레지던스 같은 경우 현지 공모사정이나 일정의 변동이 생겨서 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입장에서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요강의 문장을 가다듬는 차원으로 보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총 5개 대상별로 각각 도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사업별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 추진일정은 3월 8일부터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예술가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세팅을 해 봤습니다. 4월 중순경에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5월

초까지 심의를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월 초에 발표를 하는 일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공모를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1월과 2월 등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추진했을 경우를 포함해서 선정될 경우 소급해서 집행도 가능하고 신청부분에서도 열어놓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배정은 36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유형별 도표가 나오는데 비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듬해로 연기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공모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공모할 실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몇 건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심의 후에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잔여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등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에 2차 공모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심의위원 명단, 풀의 협소함 등, 그리고 국제교류의 현장 감각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심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창작산실 쪽을 준용해서 사무처와 위원이 1배수, 1배수로 해서 추천해서 구성하고 섭외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접수 결과에 따라서 장르별 또는 통합심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심의 절차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공통적인 진행절차와 사업요강에 나와 있는 심의기준치를 발췌한 부분으로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별첨으로 되어 있는 사업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제교류부장이 검토하신 의견을 미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일단 박경주 위원님께서 다원예술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다원예술 복원의 필요성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이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세워봤는데요, 일단 이번 공모사업에서 갑자기 제외된 것은 아니고 과거 다원예술 시행 당시나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국제교류 사업에 다원예술을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 쪽 이어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의 경우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선제적 지원 사업으로 제도화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국내 상황이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제교류사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해외 현장에서의 예술교류 생태계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각종 페스티벌이나 여러 양상에서 봤을 때 시각예술을 위주로 한 비주얼 아트라든지 전체 공연예술의 퍼포밍 아트 등 양대 축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있고요, 국내에서 다원예술로 규정하는 프로젝트 관점을 국제교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사전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현장 예술계로부터 들어본 바로는 공모사업 지원자 입장에서는 교류 상대국에서 원하는 작품 콘셉트라든지 기획의도에 맞춰서 평상시에 추구했던 다원예술적 작업 스타일을 유연하게 응용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념정립이 일반적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원예술에 대해 별도의 분야 트랙을 뒤편 신청을 받고 심의하는 방식이 과연 유의미한가는 냉정

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저희의 고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무적인 문제로 국제교류부의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심의분야가 추가된 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과부하 되는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 통섭적인 차원의 다원예술은 그동안 공모사업 신청자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신청사업 내용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장르,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큰 핵심적 장르성격에 따라서 해당 장르별 심의에서 통상적으로 심의 평가를 받아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예술분야 사업이 없어진 이후에 해당분야 예술가들이 피해를졌다는 위원님 의견에는 외람되지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시각, 공연 등 제반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을 분야별로 배분해야 하는 국제교류사업 구조 안에서 다원예술분야의 추가가 공식화 될 경우 예산 증감에 있어서 분야 간에 제로섬 게임 양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다원예술창작지원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다원예술이..... 그때 이원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각의 종 다양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예술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것을 저도 희망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교류에서도 글로벌 공통의 아젠다를 발굴한다든지 공동의 관심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원예술은 국내와 국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면서 특성화된 지원전략 내지는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원예술을 넣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원예술은 여러 가지 장르별 예산배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다원예술 신규사업도 생긴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종관 위원장 : 양한성 부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포괄적인 맥락에서 확대 논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사업과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에 다원예술을 지원하도록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신청 안내서에 적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다원예술을 배제하지 않았습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대로 다원 종사자거나 다원예술분야 예술가들의 피해자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 영역에서 다원예술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만일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하여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원칙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건을 확인했거든요. 저도 분명히 확인해야 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의나 신청에도 잘 반영이 되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원예술이 국제교류에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요청 중에 어떤 요청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장르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간다면 연극 장르가 됐든 무용 장르가 됐든 음악 장르가 됐든 장르심의위원 안에 다원예술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지 않으면 다원예술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다원예술분야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르에 통합해서 심의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대안적인 방법으로 다원예술적인 작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꼭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현장에서 저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원예술 쪽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심의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박경주 위원 :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분야별 심의위원을 몇 명씩 구성하죠?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분야별 5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장르별 안배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그러니까 장르별로 5명을 구성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장르별 안배는 안 하죠?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같은 경우나 레지던스가 모두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장르별로 5명씩 골고루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현장에서 “다원과 관련된 심의위원이 왜 부재하냐?”라는 내용이 문제 제기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보통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전통, 다원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5명 구성할 때 공연 쪽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을 모두 공연으로 묶는 것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아니요. 창작산실처럼 독립적으로 심의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다원예술이 기존 심의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면 장르를 넘나들면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을 포함시켜서 구성할 복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왜 현장에서 그런 비판이 있죠?

여선희 국제교류부 과장 :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류부에서 지원총괄을 맡고 있는 여선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내 사업과 다르게 6개 장르, 그러니까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6개 장르가 모두 국제교류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의도 각각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으로 6번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문학 심의를 할 때 문학과 관련된 장르 전문성 위주로 5명으로 구성하고요. 시각 같은 경우도 시각 전문성을 위주로 5명을 구성하기 때문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번 심의부터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각각 장르별 심의를 할 때 최소 1명 정도는 다원예술의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예진흥기금사업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서에 보면 다원예술도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과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인 203쪽부터 시작되는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사업의 공고문에 보면 다원예술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가 않아요. 특히 문의처 같은 것도 다원예술은 없어요.

박경주 위원 :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신청서 자격에는 있어요. 신청서 자격에는 “문학, 시각, 공연예술, 다원·융복합 분야의 개인 및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심의시스템이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안내처 등이 없는 것인데요. 없는 것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전담부서가 약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한 이후에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심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 문의처에 다원과 관련된 부분만 집어넣으면 현재 공고문도 유용해 보이거든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사실 제가 이 부서로 오면서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별도공모사업에 대해서 공정심의부의 실무적인 해석도 전달을 받았는데요. 당시 정시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의결을 봤고요. 세부적인 별도공모사업 내용이나 요강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전달을 받았습시다. 사실 별도공모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저년도 틀에서 책자제작이나 홈페이지에 안내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전달사항을 받아서요. 사실 다원예술을 포함해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별도의 의견을 받으라는 행정적인 지침사항을 전달 받아서요. 사실 다원예술 부분도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해서 일단 올린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에 다원이라는 분야가 지원공모 요강에는 들어가 있는데 심의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의견을 주셔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박경주 위원님께서 다원예술의 가치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다원예술분야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다면 1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다원분야의 심의위원을 1명 늘릴 수는 없나요? 큰 예산이 소요됩니까?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다원예술을 추가하면 저희가 별도의 다원예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장르의 위원 중에서 다원과 관련된 분을 제외하겠다는 개념보다는 다원 쪽의 전문가 1명을 정확하게 제외해서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장인주 위원 : 정정숙 위원님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데요.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상 어느 장르가 되었던 분야의 전문가라면 컨템포러리 예술의 특성상 융복합과 다원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원분야의 특성도 고려해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각 장르에 국한된 분들을 모시고 다원분야의 분을 추가로 모시는 것보다는 국제교류사업과 컨템포러리 예술을 아우를 수 있는 각 분야의 심의위원을 모시는 게 훨씬 양질의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잠깐만요. 저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박경주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취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인데요. 물론 현대예술은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것은 다들 아시는 분야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원을 바라볼 때 무용이나 연극, 미술 쪽에서 바라보는 다원과 “나는 다원예술가입니다.”라고 하는 예술가와와는 사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심의위원 자체를 다원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다원예술가들의 창작의지나 교류의지 등을 가치 있게 봐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정도 진행해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내년에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원예술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원을 하는 김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심의위원 풀에 너무 적격자가 없지 않다면 그 부분은 다원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심의위원을 모시는 게 조금 더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정정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게 많이 어려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의결을 해 주시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고요.

유은선 위원 : 어차피 다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지원신청 안내서에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원분야가 있습니다. 다원분야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되었는데요. 다만, 심의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도 생겼으니까 전화번호 안내 같은 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서 장르를 정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장르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시각을 기반으로 한 다원이 있을 수 있다면 공연을 기반으로 한 다원이 있을 수 있어서요. 공연이라고 한정되어도 다원예술분야에 속하는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심의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과 부장은 어떤가요?

박경주 위원 : 저는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로 분명하게 명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다원예술이 복원되는 시점에서 현장예술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다원예술이 어떤 장르로 진입해서 작가나 작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류의 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류의 장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중에 다원예술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없다보니까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예술이 복원되는 시점이나 저는 현장의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되도록 다원예술가들이 주류로서 진입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일단 정시공모 당시에 정식 의결은 안 되었지만 이미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서 안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재확인하고 다원예술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적인 부분들은 다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각 장르별, 그리고 실제로 다원예술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별도로 다원예술 심의위원회를 꾸리더라도 다원예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다원예술분야가 고려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다원예술이 문학, 시각, 공연예술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해 주시고 심의시스템 부분은..... 일단 저희의 복안은 별도의 다원예술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내부적인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환류를 해 주세요. 결과에 관해서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

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님은 다윈과 관련된 심의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위원제도를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금 더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윈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심의기준 및 심의가중치가 있습니다. 것을 보면 대부분의 파트가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준과 가중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 달라졌지 항목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몇 군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독적으로 수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전문 심의위원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술국제교류지원 같은 경우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 각자의 나라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굉장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산절차 등은 예전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설득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심의기준도 홈페이지나 책자에 안내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말씀하신 파급효과 등의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심의단계에서 세부적인 평가내용이나 착안사항으로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작년에 코로나19에 당면하면서 연도 중반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연장, 취소, 기집행분에 대한 소급인정 등 여러 가지를 망라한 국제교류사업 집행지침을 저희가 안내한 바가 있고요. 예술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안내를 했었고 작년에는 심의도 유연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최소 올해 2월까지 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다만, NCAS나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부분은 시스템으로 표준화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 등을 e나라도움센터나 담당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략사업본부장님 계시죠? 전략사업본부장에게 정종열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심의에 있어서 배점문제와 코로나 국면의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부장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그런데 양한성 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기준은 저희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의 집행에서의 문제점도 작년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처를 했고요. 올해도 역시 그 기초를 가지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작년 기준으로 사업집행률이 몇% 정도가 되나요?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제가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 가기 전에 공정심의부에 있었기 때문에요. 현장의 예술인들이 지원심의 양식의 간소화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여도 및 파급효과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준을 넣으면 넣을수록 양식도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예술인들이 예술창작을 하면서 파급효과까지 여기에 쓰는데 이런 것들은 간소화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준 간소화를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은 뺐고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사업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조금 보고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사업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와 어떤 것을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집행률은 전체예산 대비 90% 정도라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제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추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이 지적한 다원예술분야와 관련된 문의처 그리고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문제. 그것은 당장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심의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다 적절한 심의시스템을 구성하고 다원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바로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2가지를 하나는 조건으로 하나는 수정으로 바꿔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21년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엄민영 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염민영 미래사업부장 : 안건번호 제 863호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공연예술의 내내역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내역사업으로 편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예술 주도적 기술융합으로 예술의 영역과 가치를 확장하고 예술적 창의성·표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되었으며 올해 예산규모는 47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 27.5억, 일반수용비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공모로 이루어진 창작지원사업과 기획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융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41쪽에 있는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은 작년부터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사업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예술가들 그리고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총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내·외부, 국내 외 환경 분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창작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창작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업방향을 확정해서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지난 1월 20일에 메일을 통해서 지금 제출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렸고요. 그와 동시에 정책혁신 소위원회에 보고와 융합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과 다른 유형의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그런 새로운 의견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저희는 2017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예술보다 기술에 치우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원회만의 정확한 사업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더 많은 지원방식을 다각화해서 사업전반을 키울 필요가 있고, 단년 사업보다는 다년간 지원을 통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입하신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과 예술을 아시는 열리어답터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과정에서 기획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정리한 부분이 공모를 통한 창작단계별 지원과 기획사업을 통한 예술·기술 협업역량 강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별도의 이런 사업을 꾸리기 위한 자문단을 꾸려서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42쪽에 있는 창작단계별 지원의 추진방향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기획단계 과정을 신설해서 예술·기술 융합창작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고요. 선정작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평가 환류를 통한 우수작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공연, 시각, 다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영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르가 새로운 예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지원 내용들은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이 포함되는데요. 재정적 지원은 장비, 기술개발비, 전시제작비, 사례비 등의 직접 경비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비재정적 지원은..... 어제까지 저희가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으로 3일짜리 행사를 준비했는

데요. 혹시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마지막 날 성과 공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성과 공유회를 거치기까지의 예술 창작과정에 대한 사진, 영상, 아카이빙 그리고 제작을 위한 관련 분야 멘토링 그리고 비평, 통합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관처를 선정하고 주관처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심의를 추진하는 직접 사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과 기술 융합에 대한 전문적인 별도의 심의위원 풀이 없기 때문에 전담심 의위원제를 도입하여 심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43쪽을 보시면 진입단계에서 초기 예술·기술융합아이디어 단계의 기획발굴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0만 원 규모로 5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기술개발 및 창작 지원을 하는 제작사업을 평균 3,000~7,000 만 원 사이에서 37개 정도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우수작품 후속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제작한 작품들이 한해의 실연단계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고도화 하고 유통·확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7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술과 기술 프로젝트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작품에 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기술 협업역량 강화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제 또 저희 말고 5개의 예술행정기관들과의 대담회를 거쳤는데요.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민간이나 공공 할 것 없이 같이 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만한 예술가, 그리고 이런 예술가들과 기술자, 코디네이터, 기획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올해 가장 1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행사를 3번 거쳤는데요. 그때 주로 기술을 이해한 예술가들의 창작 사례와 경험과 과정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를 통해 저변확대를 위한 인식제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오프라인 교육들. 그리고 창작 선정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 단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과 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킹과 전문가 간에 매칭이 중요한데요. 이런 행사를 위한 박람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1회성 행사라기보다 연간 내내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했던 예술·기술 융합주간에는 40여 명의 강연자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작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멘토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구성을 한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술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정보와 그런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술과 기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www.arko.or.kr/artntech' 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는 기존 선정 작품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창작자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개념도 그리고 메이킹필름 등과 함께 창작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활발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동향과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최초로 시도했던 단계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해서 확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기획형 과정을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앞서 창작단계별 지원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작단계에서 자유롭게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들이 자체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을 가지거나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올해 추가적인 의견으로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자유기획형 과정을 한번 신설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술·기술 융합 저변 확대도 기획사업의 형태인데요.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공연예술기반의 사업이다 보니 공연예술이 아닌 장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면서 문학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선행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할 것 없이 충분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지원부와 함께 기술 분야 융합사례가 적은 문학분야의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 발굴 현장 참여형 문학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요.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우수공연 영상화 사업은 저희 아르코예술기록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거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성과나 결과들이 중점적으로 모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을 거점으로 융복합에 대한 최신 경향과 공모가 자유주제라면 여기에서 기획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이슈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시작하고요. 동시에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실 있게 구성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내년 이후 예산에 대한 증액도 예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예술현장에 쓸모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다양한 식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부장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조금 보태면 지난번에 올라와서 협의를 조금 했고요. 부장님이 소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아르코에서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환이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이 끝났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보고 중에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신임 위원님들과 점심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앞으로 예술위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의견 공유가 있었습니다. 정정숙 위원님께서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립 과정에서 이미 우리 위원회의 사전의견 청취도 했고요. 사업개선점도 도출이 되었고 설명과정에서도 아주 기반이 되는 사업까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획이 된 것 같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진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같이 활동하는 팀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술·기술 융복합 관련해서는 소수자 접근성이나 배제의 문제와 기술이 젠더화 되거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면서 융합 과정 안에 이런 고민들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전담심의위원이나 자문기구 등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술·융복합에 대해 예술위가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소수자 관점이나 인권, 젠더 관점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전담심의위원회 풀을 구성할 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보내 주셔서 의견은 드렸고 잘 반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부탁을 드리자면, 사무처에서 이런 사업기획을 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진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다른 관점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희 소위가 3개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 보강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소위 3군데에는 사전에 의견을 여쭙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지금 이진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예술·기술 융합이라는 것이 새로운 예술인데 새로운 예술이 기존의 예술이 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반영은 물론이고요. 이진희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력은 하지만 너무나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술·기술 융합은 기존 예술행정의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명확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소위원회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궁극한 점들을 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면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예술·기술 융합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래된 현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미래예술을 가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지점들이 잘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위원장님, 다만 한 가지 전담심의위원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구성하려면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맡아 주시고 심의위원도 같이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결정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은 지난 1월 정기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안들을 기반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2021년 국회지정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시경 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중순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신규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은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쪽지사업입니다. 쪽지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상 국회에서 들어오는 거라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라도 제대로 하자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국회지정사업이 2021년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창작오페라 허황후”부터 시작해서 6번째 “오페라 코리아웨딩”까지 15억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국회지정사업 6개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관리계획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20억 6,3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5억으로 줄어든 15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년 이상 연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실제로 병역특례 요원을 뽑는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반브레이크아트 아시아”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이고요. “창작오페라 허황후”는 작년과 올해 2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주최하는 곳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공모사업이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공모로 올렸을 때 떨어질 수도 있거나 금액이 적게 결정된다는 부분 때문에 로비에 들어가구요. 특히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기 위원님들과 6기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쪽과 49쪽을 보시면 관리는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집행할 때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8쪽의 세부 추진내용을 보시면 일단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지에 대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파악을 한 다음에 오늘 의결해 주실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승인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라.” 이런 내용일 텐데요. 어쨌든 국회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사전에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에 사무처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이 3개고 국제교류가 3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2개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위원회가 열리는 날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열리는 날 사업주체 단체에서 대표자나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나 실무자 이상의 대표가 같이 와서 위원회에

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사무처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시고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사업주체 단체에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보고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승인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을 사업기본계획에서 고쳐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겠다고 하고요.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무처에서 추후에 단체가 고쳐온 부분을 보고 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이 맞게 되었는지를 본 뒤에 'OK' 되면 사업승인을 하고 그 다음 후속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사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 평가를 꾸리는데 이 평가는 6개 사업 전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지정사업 6개 전체 사업만 별도의 평가단을 꾸릴 것이고요. 여기에는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의 편성과정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과정 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사무처 직원과 해당 장르의 외부전문가 그리고 장르별 위원님들이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기획재정부나 문체부, 국회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국정감사 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로 나오는 평가는 이런 것 일겁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에도 이런 내역 사업이 공모되니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쪽에 담아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사업은 국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환류를 시킬 것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정사업을 계속 할 텐데요.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없고요. 막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관리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소극적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의결하느냐 하면, 보조금관리규정 등의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관리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필요하면 이 내용을 보조금관리운영규정에 집어넣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본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여쭙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 위원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옵션이 2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승인과 수정 후 보완승인만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2가지 옵션 외에 “수정 후 재심의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더 넣자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빠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홍태림 위원님께서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을 때 다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구조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때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라는 조건만 위원회 사무처에서 알게 되면 그 부분이 계획 속에 들어왔는지를 점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사무처에서 해 주되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홍태림 위원님이 정리를 하셨지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를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굳이 한 달이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재의결 구조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달에 한번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니까 예술위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승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모니터링 평가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계획하고 게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해당 분야 예술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용분야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를 평가하게 될 텐데요. 그 평가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크게는 정책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드백을 할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균특회계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는 게 맞겠다.”, “지방비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예술위원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으로 언제 공모를 하니까 정기공모로 넣어라.” 그런데 제가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병역특례요원을 선정하는 것이라서 우리 내부에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역사업의 가치를 하나 별도로 치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면 이것은 공모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꼭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칸막이를 뒤편 구분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평가단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런데 평가단이 평가한 것이 실효성을 가져야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내년에 또 아무런 변화 없이 같은 진행방향이랴든가 내역들을 가지고 똑같이 회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맞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제가 오늘이 첫 회의라서 구체적인 안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병역특례. 그런데 서울국제무용콩쿠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콩쿠르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콩쿠르들은 국회지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 콩쿠르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모아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두 번째의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예술위원회 자체 내에서 논의를 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리고 편성을 할 때 국회는 심사권만 있고 편성권은 없지만 사실상 행정부에 대고 “편성하면 어때요?”라는 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편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의기관이 편성하는 부분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서 내부에서는 “국회에 찾아가자.”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만들어놓은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이 의결안건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회의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회의의 진행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렵지만 휴식이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승욱 부장이 다음 의결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간공연활성화지원 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21년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25일 제 286차 위원회 전체회의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서 별도공모로 진행되기로 의결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원래는 긴급하게 1월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과 2월에는 사업 수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공모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연을 하기 위한 비용 중 상당히 부담이 큰 대관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소극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비 일부와 공연제작과 같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과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이라는 2개의 내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21년도에는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올해 전체 추진배경 중에 작년에 지원했던 대관료지원사업의 상당수인 65% 정도가 민간 공연장에 지원이 되었고 35% 정도가 국공립 공연장에 다시 귀속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올해 사업들을 조금 조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3개년 사업예산 중에 2019년도에 39억 200만 원 정도이고 2020년도에는 32억 3,3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상당히 감축된 상태에서 25억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억 5,200만 원의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약 50억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 이후에 민간 공연단체 그리고 공연장의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같은 사업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건들을 완화했고 심사에 대한 부분도 간소화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작년도에 대한 사업결과입니다. 추경 등을 통해서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58억 5,400만 원을 총 1,223개 공연에 지원을 하였고요.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사업들을 통해서 391개의 민간 소공연장에 46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율도 거의 100% 소진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설계가 상당히 잘 되었기에 전체적으로 공모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되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국공립 공연장으로 다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강화된 기준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5대 3.5정도로 민간과 국공립 비율이 있었다면 올해는 7대 3 정도로 조금 더 민간 공연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작년 추경사업을 통해서 11월까지 진행된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료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전체 사업의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공연에 대해서 대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공연장 지원은 현재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후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을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기간 안에서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의 규모는 1개 사업 당 최대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제외대상 사업들은 뮤지컬의 경우 해외공연단체에 대한 내한 공연이나 월드투어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더 이슈가 있었던 게 있는데요. 공연예술이라는 해석 여지에 따라서 대중산업 쪽에 있었던 음악 공연에 대한 대관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올해 2월 말쯤에 콘텐츠진흥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예술분야에 한해서 대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작년에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소극장협회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 소공연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사람과문화회축사무소’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주관처를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추진방식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속하게 지원금이 예술단체와 민간 공연장에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추진일정을 보시면 3월에 바로 공모를 올리고 대관료지원사업의 경우 4월에 사업주관처와 위원회가 행정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공연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 구성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5월부터는 바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이 결정이 되는 이후에는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관료를 결정하다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지원결정액에 대한 조정방식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전체 지원적격 여부가 확인된 단체에 한해서는 지원신청액 중에 주관처에서 검증한 금액을 최종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적격 여부가 확인된 단체의 지원검증액이 배정 예산을 초과했을 시에는 단체 1건의 공연작품만 우선하여 지원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일괄 비율조정을 통해서 배정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야 실질적인 예산을 전액 소진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검토의견으로 가운데 박경주 위원님께서 다원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 기반에 다원예술이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삽입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승욱 부장의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한 가지 여쭙볼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2가지 사업이 합쳐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관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일반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일반 사업도 안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화일반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주 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는 대관료지원사업의 공연예술분야와 다원예술 문화일반이 다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 사업은 문화예술 일반분야가 아니라 처음 설계될 당시에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대관료지원 사업으로 설계가 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바로 직전까지 제가 공연기반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설계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일반과 관련된 내용이 아까 보고과정에서 인디음악, 우리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인디음악이나 재즈를 제외하느냐는 성명서가 작년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술이라든지 해당 부분은 작년 사업에서 제외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공고문이나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 2개가 합쳐지면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경주 위원 : 제가 작년에 이것을 놓친 것 같네요. 대관료지원사업에서 원래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같이 안고 가는 것이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대관료지원사업에 포함되었던 분야들은 같이 안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혹시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예를 들어 시각예술에

있어서 전시에 대한 대관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죠?

박경주 위원 : 원래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있었던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사업에 지원범위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2019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57페이지에 2019년, 2020년, 2021년 대관료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감액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전통이나 클래식음악으로 대변되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소액 다건 방식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점차 축소해 가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긴급지원이 폭넓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2019년도 체계와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정책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와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있고요. 특히 문화일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념의 정의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초예술에 조금 더 국한한다는 방향성을 2020년도에 명확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그것을 2021년도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 의견은 잘 알겠고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적인 예술생태계를 고려하는 안목은 가져야 되니까요. 저희가 배제한 사업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등을 콘텐츠진흥원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제가 신입이라서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공연장 활성화에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협약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처가 ‘사람과문화건축사무소’인데요. 2020년 5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의결을 받으면 갱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갱신을 하는 것인데 ‘사람과문화건축사무소’의 운영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나 구체적인 액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 공모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작년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는 소극장협회라든가 해당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주관처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사람과 문화 1개 사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소속에 있는 공공기관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사람과 문화’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온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민간 소공연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금액적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는 경쟁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 4~5% 정도 안에서의 운영비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전년도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의결안건이 끝났고요. 6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사항의 내용이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3차)의 건이 있고요. 소위원회 활동 보고 4건이 있고 성폭력대응체계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설계를 한 이후에 저희 예술위원회에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의결에서도 관람료지원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44억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지원하는 비용이 144억 정도가 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약 14.8억 정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에 대한 좌석 제한 그리고 예를 들면 공연장이 전체적으로 관객들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액할

인쿠폰 같은 부분들을 모두 국가가 금지를 시킨 것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기간이 202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관람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021년 2월 23일 기준까지도 실집행률이 2.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정 받은 약 14.8억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85.1%를 예산을 집행하였기에 문제가 되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제로 늘어난 2021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기간 안에 이 사업운영비를 통해서 실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와 69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현재 할인쿠폰이 발급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웃음이 결과적으로 올해 연말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걱정도 됩니다. 현재 할인권을 발급한 게 64만 9,460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5만 1,000장 정도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티켓 판매금액이 약 75.3%가 2019년 대비 줄었고 실질적으로 공연에 대한 편수도 약 67%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통계치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안건은 70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방식에 대한 개편 사안들은 지원규모,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인당 8,000원×4장×월 1회로 32,000원 정도의 할인권을 저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기준을 8,000원×2장×예매처 2곳×월 2회로 해서 1인이 최대 64,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변경하게 협의를 했고요. 적용대상 사업들은 당연히 5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온라인티켓 예매처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비대면 공연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현재 대면공연까지 확대해서 할인권을 발부해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할인권에 대한 신청 후 발급되는 방식이 익일 발급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신청 즉시 발급이 되어 실집행에 대한 통계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매처가 8곳이었습니다. 69쪽을 보시면 인터파크부터 하나투어까지 8곳을 진행했었는데요. 개선된 사안에는 예매처를 총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파크, 예스24, 네이버N, 멜론티켓, 티켓링크 등으로 진행하기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운영비 효율화 방안은 직접 경상비, 그러니까 직접 쓰는 비용들을 모두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홍보 예산 쪽을 조금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비는 그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하고 안의 내역에서 홍보비만 가장 많이 증액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유란 위원 : 제가 작년 5월에 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요. 궁금한 부분은 어쨌거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 시에 즉시 재개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태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논

의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 단체들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쪽에 이 사업이 재개되는 단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경 측에서도 이 내용 말고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재부를 통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도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화살이 저희 예술위 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포르쉐코리아와 같이 거리두기 티켓 구매 관련된 것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한 빈 객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가용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의 재원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이 사업은 500억 규모로 국고에서 한다고 하고 문체부 공연예술진흥과 그리고 예경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재원이 국고에서 안 되니까 기금으로 오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받다 보니 위원님이나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가서, 말하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받아서 할 때도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사업을 없애면서 새롭게 하게 되면, 이건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국회에서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자체 내의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기도 해도 같은 사업이 2가지 원천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예산을 지금 현재 없애버리면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처음 출발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 때문이에요. 중간에 저희들 예술위원회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을 중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국회 심의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고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여지책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가야 해서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없애고 다른 식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단계가 되면 다른 6개의 소비 쿠폰처럼 갈 텐데요. 아마 6월 달에도 안 끝나면 사업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유란 위원님의 말씀은 어차피 집행될 예산이면 그나마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해 달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잘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오늘 논의가 조금 지연되고 논의할 거리가 많아도 대략의 보고는 받을 수는 있는데요. 축약해서 짧게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여전히 집행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간담회 주제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접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 혹은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실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하는 형태로 실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은 집행 주체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문체부와 예경과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결국 사업파트너 관계니까 같이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접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보고로 넘어가기 전에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12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3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0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0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한꺼번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책혁신부장이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12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이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관부서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하고 답변을 다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지원 사업 계획 논의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거버넌스 강화 관련 위원회 간담회 결과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소통창구 운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위원님들 개인 이름으로 답변을 달아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후속 논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아르크 대토론회를 했는데 후속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생태계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과정 중심의 사업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논의결과 81페이지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홍태림 소위원장님이 별도 문건을 내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약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13차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후속 논의와 관련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세션별 사회를 맡으셨던 4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4월 16일에 이주민 예술가 지원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 이주민예술가지원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박경주 위원님을 포함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송원 위원님이나 신민준 위원님이 함께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간담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9개 권역으로 지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요. 일단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지향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의가 있었습시다만 마지노선을 4월 15일로 정해서 그 기준으로 만약 대면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라도 공고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저희 사무처에 반영시켜서 차년도 공모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이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홍태림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 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2021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 방안과 관련하여 점심 식사 이전에 시간을 따로 얻어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양해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TF 활동 이후로 계속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공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대외협력위원회 문제를 제외하고 4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큰 방향의 양해는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 위원님이 계실 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홍태림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창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어요. 추가로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서면의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현장소통 소위원회 김대현 위원님이 예술위의 담론 매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고 이틀 전에 현장소통 소위원회 회의 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직 전모를 모르는데요. 향후 이 제안서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서 2022년도 예산의 기본 틀이 나오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빨리 검토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은 여건 상 원래 공론화의 장을 만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위원님들 간에 제시된 안건 중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공론화 의제가 있다면 이와 관련성 있는 부서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3월 안에 각 소위원회나 위원님들 간에 공론화 의제들이 정돈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무처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돈해서 5월부터는 원래 공론장이 진행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소통 관련해서는 마지막인데요. 2021년에 소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각 소위마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분되고 1,000만 원 정도는 소위원회 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그 외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일 텐데요.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경주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외국인 예술인 비자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예산 산출을 해 보니까 6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는 예산의 60%를 이미 공론화와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들과 협력해서 원래 공론화를 이어나간다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의견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몇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 배정 문제는 먼저 소요 등을 예측해 보고요. 결국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단위니까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어떻게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받거나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고 일단은 먼저 활동의 범위 등을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고요. 저희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보고를 받기보다는 “어떤 소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벌써 60%를 소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한 만큼의 사업 범위 등을 정책혁신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이후 우리 기관의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구체적인 성과물이기도 한데요. 소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도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운주 위원님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가 있었고 앞으로 방향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평등 소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꼭 보고를 드려야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성평등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기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 성평등 소위원회 모임을 언제 할 것인지가 정해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희 위원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소위원회 간 공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간 공유 문제는 7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인지를 한 상태였고 전담 부서를 통해서 모든 소위원회를 총괄해보고 소위원회 간 의견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위원들 다수가 현장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 부서 쪽에서는 향후 소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른 소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개최가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부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부장님, 사실 그 문제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현장소위, 정책혁신소위, 성평등소위 간 연결지점과 심의 간에 원활한 소통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은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짧게 배경과 제안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지금 성평등소위의 위원장님 임기가 끝났고요. 작년 5월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여러 가지 여건 상 2개의 소위를 하려다가 성평등 소위원회까지 해서 3개가 운영된 것인데요. 그때 소위 간의 연계지점이나 소통 등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하고요. 그때 이원재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은 현장 소위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 나오면 그것을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 시스템 안에서 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 말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정책혁신소위와 현장소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들 간에 정례적인 미팅 등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온 것은,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하시는 TF도 사실 성평등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2개씩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위원들이 오셨으니까 저희 소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쪽으로 갔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위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성폭력대응체계구축 등은 일단 지원총괄부에서 보고를 하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보완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준비된 문건을 참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우선 이진희 위원님께서 ○작가 성희룡 사건 이후의 후속 조치 결과

발표(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3가지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구축 TF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회의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초 12월까지로 되어 있던 활동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TF 구성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실제로 당장 3월과 4월에 가장 중요한 것이 114쪽 가운데 3번 항에 있는 지원총괄부 내에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인재성장부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이진희 위원님과도..... 여기에 보시면 “왜 1.5인이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험도 많은 인력을 실질적으로 채용하려면 저희의 인력 운영구조 상 프리랜서 형태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나주 본관에서는 관련된 제반 법률적인 자문과 법률 의뢰 등으로 1.5명으로 구성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4월에 이런 전담인력 체계와 함께 위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계시는 대응체계를 구조화 하는 작업 이후에는 어떤 가해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저희의 입장문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의 합의된 의견들을 가지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입장문은 사전간담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진희 위원 : 지난 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위가 조치한 내용. ◦작가에 대해 후속적으로 조치한 내용과 향후 과제와 대응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TF 운영계획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잘 공유를 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소위의 활동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예술위 내에서 성인지 관점을 확산하고 대응체계를 구조화해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책과 성 주류화를 예술위 내에서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조화가 이 제안을 한 목표입니다. TF가 6월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완료하고 이후에 실태조사나 정책들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드는 것은 성평등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자문은 TF에서 자문을 하기 어렵고 6월까지 수임을 한 이후에 장기 계획은 성소위에서 하고 사건에 대한 사례지원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했고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소위에서 인권위원회 혹은 젠더 위원회, 가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위 안에서 새롭게 신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

를 한다는 것이 TF와 자문 회의, 성평등 소위에 장기적 과제들을 설계한 내용입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TF, 자문 회의, 전담인력 등 4자가 어떤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보고를 모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예술위 위원 정책워크숍 관련 의제 논의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던 22일 행사에서 장관님과 나누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및 사업제안과 같은 기타 논의사항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의견이라든가 의사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안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위원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원재 위원 : 지금 있는 계획에서 저는 일단 논의가, 그날도 제안을 했지만 장관과 정책협력 워크숍이나 소통을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얘기가 있었지만 첫 워크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안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성 보장 선언문은 11일 전에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날은 간략한 공유와 확인, 체결만 뒤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약 60분이 더 확보가 되는데요.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문화 뉴딜이나 장관이 제안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확보된 60분을 저희가 준비해서 예술위의 주요한 전략적 협력정책이나 사업을 장관과 토론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정리를 하면 뒷부분의 자율성 보장 선언 전에 간략하게 점검을 10~20분 정도 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1부는 문화 뉴딜이나 코로나 관련 부분을 논의하고요. 다음 세션은 60분 정도로 예술위의 채용조달 등을 준비해서 장관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3월 5일까지 위원님들 개인 그리고 사무처 차원에서 장관 워크숍에서 얘기할 제안 내용들을 각자 문서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 취합을 하면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8일 정도에 집필이나 정리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조정해서 11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나 사전논의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한번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위원님들과 사무처 간 준비팀을 짜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제안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3월 5일 이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논의할 내용들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정된 11일 이전에 간담회가 필

요하다면 화상으로 간담회를 하는 형식의 논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사무처 내에서는 이 문제를 경영전략본부와 기획조정부가 직접 백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백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세부 추진계획(안)은 초안인 상태이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보장 선언문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후 3월 4일까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게 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시고 논의를 하시게 되면 3월 11일 목요일은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자율성 보장 선언문에 대한 초안은 문체부에서 준비를 할 테니 이 세션에 해당하는 문화 뉴딜 연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나 문화뉴딜과 관련이 없어도 예술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건을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3월 4일까지 문체부에 안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담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8일, 9일, 10일 안에 해야 하거든요.

이진희 위원 : 예,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3월 간담회는 8일, 9일, 10일 중에서 날을 잡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간담회를,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는 건 화상으로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장관과의 워크숍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제니까 8일, 9일, 10일 중에 하루를 잡아서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짜를 정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자료 집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약간 스킴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일까지 내용이 다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테이블을 잘 활용하려면 페이지 집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워크숍에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일까지도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사무처 차원에서도 페이지가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진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이 정리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저는 3월 5일까지 초안을 받자는 것이고요. 8일에 저는 그것을 모아서 집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루틴대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페이지 작성하는 것을 8일날 담당을 정하면 위원들과 그날 하루 종일 일정을 빼고 모여서 작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수순대로 가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일까지 협약서

초안을 내서 공유하며 3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 실무 쪽에서 이것을 집약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일 오전만 아니라면 8일, 9일, 10일 중에 하루를 간담회 하는 일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괜찮다면 9일 오후가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정해주시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원재 위원님이 일정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일정보다는 조금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재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내용, 위원님들과 사무처에서 제안할 의제들을 정리하는 것은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주시고요. 수요일에 1차 취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페이지 작성을 하는 것은 목요일까지 완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의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8일에 간담회를 하시면서 보완을 하시는 일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제 접수를 3월 5일까지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집니다.

이원재 위원 : 동의합니다. 자율협약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을 하면 자료 집필은 사무처에서 다 하실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위원님들과 사무처에서 같이 해야죠. 만약에 문예기금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제안한다고 하면 저희 기획조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위원님들이 보신 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학 분야의 추경 등의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략적 수위도 결정해야 하거든요. 예컨대 문학 예산을 늘리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창작 예산을 얼마를 늘리자고 할 것인지 등은 전략적인 문제니까 논의거리죠.

이원재 위원 :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대로 3일까지 의제를 주시고 4일까지 페이지를 전달하고 취합한 것을 가지고 8일에 작업을 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간담회는 9일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8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8일이면 월요일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월요일로 간담회를 확정 짓도록 하고요. 아예 일정을 잡는 김에 위원회는 3월 26일 금요일로 정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면 19일 간담회는 없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예,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8일 간담회는 장관 워크숍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활동 계획을 정하거나 하는 소모적인 형식의 위원회를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고도 받고 논쟁거리가 있다면 논의를 하는 간담회가 또 필요하다면 특별하게 간담회를 2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2일에 긴급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장관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기조 논의가 필요하다면 2일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결정된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8일에 간담회를 열고 26일에 정기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정할까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그날 문체부와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게 60분 정도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렇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안건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발표하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제를 주시고 페이지 작업을 해서 구조화 해 보면 지난번처럼 역할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젠다가 크게 2가지입니다. 장관이 제안하셨고 코로나와 뉴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아젠다가 하나 있고 위원회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서 들어가자는 제안이고요. 의제들을 주시면 취합하고 작성해서 역할을 간담회 때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요?

박경주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독방에 올려드렸듯이 문체부 장관님을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임기 초니까 귀가 많이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젠다 외에도 분야별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짧지만 내부적으로 역할 플레이를 하면서 잘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의 수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안을 내 보시고요. 저희 같은 신참보다는 계속 고민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실 것 같고요. 문예위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안건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8일날 잘 조율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막 시작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까지 당겨서 하는 것이니까요. 8일에 논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사실 저는 거기에 배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가 출범한 장관의 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답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의 장관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OK'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협약 등은 문체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인을 할 수 있는 범위고요. 또 장관으로서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2021년도에도 추경이 3차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장관이 노력해 주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2년도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장관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의제들을 잘 고려하셔서..... 장관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근거해서 장관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체크리스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 안에서 경중이나 선후를 바라보신 후 잘 정리해서 이번 장관과의 워크숍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마지막 논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무처도 이번 테이블에서 위원회 전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내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언을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난번처럼 협의를 해서 나누면 되고요. 내용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위원들 개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처도 같이 챙겨서 그 테이블의 의제를 같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전략이라고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사전 배경 등을 살펴보고 나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보고 내용의 수위를 정하고요. 만일 가감이나 삭제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제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분담할 것이고요. 수위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거라면 사전에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쟁점이 있다면 문체부에도 사전에 큰 기초를 알려줘야 답변을 듣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팝업씨어터 소송과 관련한 기초대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논의사항이지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고 재판과 관련된 문제니까 공개하여 논의하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본 안건은 비공개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장인주 위원님은 조금 먼저 가셨지만 정정숙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은 첫 위원회인데 6시간에서 5분이 빠지는 긴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월 별 1회 이상 간담회를 통해 사전 논의를 보충하는 등 다양한 위원회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만든 각종 장치들이 순식간에 무기력해 졌습니다. 위원회와 사무처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회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하면서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59분 회의종료)

